

종근당, 당뇨병 치료제 성과 ‘뚜렷’ 복합제 등 시장선점 속도 낸다

듀비에 기반 복합제 연구개발 활발
‘엠파맥스에스정’ 식약처 품목허가
자누비아 판권 확보 등 수익성 강화

종근당이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속속 내놓고 있다.

9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7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2형 당뇨병 복합제 ‘엠파맥스에스정’(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시타글립틴)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번 품목허가는 ‘엠파맥스에스정’ 25/100 mg, 10/100 mg 등 두 가지 용량에 대해 이뤄졌고, 해당 의약품은 과글리플로진과 시타글립틴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에게 쓰인다.

엠파맥스에스정은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억제제 계열 약물인 ‘엠파글리플로진’과 DPP-4 억제제 ‘시타글립틴’을 조합한 의약품으로 첫 번째 사례다.



제20호 국산 신약 ‘듀비에’ /종근당.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다양한 성분을 조합한 당뇨병 복합제가 잇따라 발매되고 있는 가운데, 종근당이 새로운 복합제를 선보여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근당은 앞서 국산 신약 듀비에를 기반으로 한 2제, 3제 복합제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며 당뇨병 치료제 제품군을 확대했다.

종근당은 일찍이 2014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제20호 국산 신약 ‘듀비에정’(성분명: 로베글리타존)을 발매하고 듀비에 패밀리를 구축해 왔다. 2023년 9월과 10월 각각 듀비에에스정, 듀비에에스서방정 등을 발매하기도 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뿐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종근당은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해 왔다. 특히 2023년 5월 스위스 제약사 MSD와 자누비아, 자누메트, 자누메트XR 등 3개 품목의 국내 판권 및 유통권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기간은 오는 2038년 8월까지로 종근당은 허가, 상표, 제조 등 모든 권리를 확보했다.

2024년 기준 종근당은 자누비아 제품군으로 80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당 매출은 전체 매출의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듀비에정의 경우, 연간 15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신라호텔 ‘골레드보 보떼 스파’ 오픈
신라호텔 ‘골레드보 보떼 스파’를 공식 오픈했다
고 9일 밝혔다. 이정호 호텔신라 호텔&레저 부문
장(우측에서 세 번째), 니콜 탄(Nicole Tan) 시세이도 아시아 퍼시픽 대표(우측에서 네 번째),
양근혜 시세이도 코리아 대표(우측에서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신라호텔 ‘골레드보 보
떼 스파’ 그랜드 오픈 행사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호텔신라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주식 500억 취득

〈셀트리온 그룹〉

책임경영 강화…美 관세 적극 대응

셀트리온그룹은 서정진 회장(사진)이 사재로 약 5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정진 회장은 30만6561주의 셀트리온 주식을 장내 매수할 계획이다.

서정진 회장의 주식 취득 결정은 최근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셀트리온 기업 가치가 저평가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현지에서 1년치 이상의 재고를 이전했



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에 위치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 협업한다. 또 연말까지 현지 생산시설 확보 관련 논의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셀트리온그룹의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와 그룹 내 계열사 셀트리온스킨큐어도 각각 약 1000억원, 약 5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매입을 결정했다.

셀트리온 측은 “회사 주요 사업의 향후 성장 가능성은 변함없는 만큼 기업 경쟁력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씨젠, 무인·대량 ‘PCR’ 진단시스템 첫 공개

〈중합효소연쇄반응〉

ESCMID서 ‘큐레카’ 영상공개 예정
전 과정 자동화…‘패러다임 바뀔 것’

씨젠이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의 전(全)과정을 자동화한 진단시스템 CURECA™(큐레카)를 처음 선보인다. 세계 처음 시도되는 모든 PCR 검체를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4시간 무인 검사 시대를 열 것 이란 기대가 높다.

씨젠은 오는 11~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유럽 임상미생물감염학회(ESCMID Global 2025, 이하 ESCMID)에 참가해 현재 개발 중인 CURECA™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CURECA™는 모든 PCR 검체를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이다. CURECA™는 검체 자동 전(前)처리 장치(CPS)와 핵산 추출부터 유전자 증폭, 결과 분석을 수행하는 검사 장비(CEFA) 등 2개 파트로 구성된다.

분자진단 전처리 과정은 대변, 소변, 혈액 등 다양한 검체와 여러 규격의 용기를 분류 처리해야 하는 만큼 검사실 내 많은 전문 인력이 시간을 들여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인으로 작동하는 CURECA™는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휴먼 에러(human error)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모듈형 장비로 설계되어 각

검사실 니즈에 따라 맞춤형 세팅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사실에서는 장비 구동 시간이나 검사 인력의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무인으로 대량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종윤 씨젠 대표는 “아직까지 모든 종류의 검체를 자동으로 전처리하는 장비가 없다 보니 분자진단의 실질적인 자동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씨젠의 독보적인 신드롬릭 정량 PCR 진단시약과 더불어 CURECA™가 향후 글로벌 분자진단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며 진단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나라셀라, ‘프리미엄 디너 멤버십’ 선포

“품격 있는 다이닝 경험 제공”

국내 와인 유통업계 최초 상장사인 나라셀라가 멤버십 프로그램 ‘나라셀라 프리미엄 디너 멤버십’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나라셀라 프리미엄 디너 멤버십은 국내 특급 호텔 및 리조트의 고급 식사와 나라셀라가 엄선한 프리미엄 와인을 조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리미엄 디너 멤버십은 총 50명 한정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나라셀라 관계자는 “이번 멤버십은 와인과 미식을 사랑하는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품질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품격 있는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나라셀라, ‘프리미엄 디너 멤버십’ 론칭 관련 포스터 이미지 사진 /나라셀라

며 “와인, 사케, 위스키 등 나라셀라의 폭넓은 포트폴리오와의 페어링으로 다채로운 미식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동아제약 박카스맛 젤리 한정판

원신 캐릭터 활용 10종 구성

동아제약은 박카스맛 젤리와 글로벌 게임 원신이 협업해 이색적인 행사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사진)은 박카스맛 젤리 오리지날 5종, 신맛 5종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고 각 제품에 원신 인기 캐릭터가 적용됐다. 4월 중순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또 16일부터 동아제약 공식몰 디플,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등에서 캔배지 세트, 셰이커 키링 세트, 장패드 세트, 나비아 치열업 세트 등 협업 굿즈를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국제약 “봄 환절기, 건강 챙기세요”

리클란 점안액 등 관리방법 소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기승을 부리며 눈과 코, 호흡기를 자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외 활동 시 눈이 따갑고 숨쉬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안구 건조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동국제약은 이러한 눈과 코, 호흡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봄철 건강관리법을 9일 제안했다.

먼저 ‘코즈굿 나잘스프레이’는 비강 보습제로 먼지, 황사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건조해진 코 점막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안구건조증개선제 ‘리클란 점안액’은 주성분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PDRN)에 히

알루론산을 첨가한 1회용 점안액으로, 안구 건조로 인한 각막과 결막의 미세 손상 관리에 효과적이다. ‘트로옌텍스 프레이’는 인후두염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을 빠르게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벤지다민과 세틸피리디늄염화수화물 성분이 ▲진통 ▲국소마취 ▲소염 ▲항균의 4중 작용을 통해 자극받은 인후 점막을 진정시키고 통증을 줄여 준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에는 눈, 코, 호흡기 점막이 쉽게 자극을 받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러한 증상이 알레르기성 비염, 부비동염, 인후두염, 눈 건조증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상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휴젤, ‘웰라쥬’ 캐나다 코스트코 매장 입점

북미지역 오프라인 시장 첫 진출

글로벌 토털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더미 화장품 브랜드 ‘웰라쥬’가 캐나다 코스트코 매장에 공식 입점했다고 9일 밝혔다.

입점 제품은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 기획세트와, 피부 보습 기능과 속건조 개선 효과를 갖춘 브랜드 대표 제품이다.

이번 입점은 웰라쥬가 북미 지역에서

처음 오프라인 시장으로 진출한 사례다. 특히 글로벌 초대형 유통 업체인 코스트코가 올해 밴쿠버, 캘거리, 켈로나 등 캐나다 서부의 주요 3개 도시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웰라쥬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아시아 진출 국가에서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앞으로 글로벌 곳곳에서 K뷰티 강점을 알리면서 브랜드 경쟁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